



예복교회 설립 23주년 맞아 감사예배 드려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는 자세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라!

十字架의道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는 1994년 설립되어 2010년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수락리버시티 2.3단지 내에 성전 부지를 구입하여 성도들과 많은 동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시삽을 가진 후 2013년 4월 20일(토) 새 성전 입당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으며 이날 3월 26일(주일) 오전 11시 설립 2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소진우 담임목사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여 김성은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빌 2:24~30), 본교 성가대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찬양에 이어 김동일 원로목사는 "헌신자의 자세"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김 목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1. 성도들의 자세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자요, 2. 주의 종을 돕고 헌신봉사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3.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투자를 해야 빌 2:30절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동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도와 함께 함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라고 전했다.

이날 소진우 담임목사는 설립 23주년을 맞아 설교를 맡아주신 김동일 목사 축사를 전한 이석용 목사, 세분의 권사, 장로들과 함께 교회 설립 23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익 절단에 이어 이석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예복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은 소진우 목사는 지난 10여년 이상을 문서선교 활성화에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JTNTV의 사장으로서 사역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 목사는 국내외적으로 부흥강사로서 능력 있는 목회자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예복교회 지교회를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오종설 목사, 충남기총연 제10대 대표회장 취임

“충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이 되는데 매진하겠다”



오종설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제10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홍성제일장로교회) 취임감사예배가 26일 오후 4시30분 홍성제일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전종서 목사(상임회장, 보령 대동장로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박귀환 목사(아산시연합회장, 생명샘동천교회)가 대표기도를, 이기영 목사(청양군연합회장, 청양중앙교회)가 성경봉독을, 홍성제일장로교회 성가대의 특별한 양, 양정국 목사(홍성장로교회)는 "충청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양 목사는 이날 "충청도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면서 "충청도 마라톤은 최초의 성경전대지이고, 고대도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 선교사가 최초로 주민들에게 한문성경을 전달해 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 전달했다. 그리고 씨감자와 포도즙을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이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에 성지가 많다는 것은 충청도 사람들이 신앙심이 많은"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목사는 "충청도는 복음화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중간에 머물러 있다."면서 충청도의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갈라진 우리 사회

의 분열과 갈등을 싸매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봉명종 목사(고문, 서산중앙감리교회)의 축도 후 열린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김형배 목사(군경선교특별위원장, 서산성결교회)의 사회로 10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가 이임하는 제9대 대표회장 강신정 목사(논산한빛침례교회)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병목 목사(고문, 금산순복음교회)의 이임자를 위한 기도에도 이어 강신정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두 번을 역임하고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면서 "홍성제일장로교회 성도들과 홍성군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들이 잘 도와주셔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 임원들과 충남 16개 시 군 기독교연합회장들과 힘을 모아 도정을 위하여 시 군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것이며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와 충남 목회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충남지역 미지된 교회를 돕는 선교협력을 다할 것이며, 특별히 교회탐방과 군과 경찰 선교를 위하여 특수선교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큰 과제는 충남 기총연이 연합하여 동성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서명운동과 교회세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오종설 대표회장은 끝으로 충남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을 만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목사는 특별위원장에 추대패를 전달했다. 군경특별위원장은 김형배 목사(서산성결교회), 연합성회특별위원장은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를 위촉했다. 오종설 목사의 대표회장 취임 축하패는 박종국 집사(제98보병연대 연대장, 군인교회), 박철규 목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대표회장)가 전달했다.

이어 허승욱 충남 정부부지사,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축하했다. 또한 김용욱 목사(고문, 당진 신평감리교회), 최태순 목사(충남 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대전중앙교회), 김철영 목사(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다.

아울러 제98보병연대군인교회와 모퉁이들 찬양단, 홍성제일장로교회 유치부가 축가를 전하고, 김진태 목사(사무총장, 당진목양교회)의 내빈소개 및 광고를 하고, 이승수 목사(고문, 아산양문교회)의 폐회기도로 취임식을 마쳤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7년 표어: 다시 한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굽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49:24)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BS TV 컬럼리스트
- Good TV 컬럼리스트
- 기독교타임즈 컬럼리스트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오후 7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수요일 오후 8시	청년 대학부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중·고등부	
금요일기도	토요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유치부		

지향하는 4대 목표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 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 (02) 934-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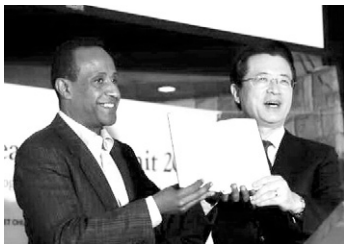
[시사] 황산벌의 화랑 관창이 된 박근혜 대통령

660년 황산벌에는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있었다. 나당 연합군이 삼국통일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임에도 계백의 기백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아는 화랑 관창은 이때 세 번이나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 결국 참수 된 채로 분영으로 돌아왔다. 관창의 희생은 무슨 결과를 낳았는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는 밑거름이 되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형세는 비슷하다. 한미연합이 자유통일을 이루려는 이 시점에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오히려 계백의 5천결사대보다 더욱 강한 조직과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결국 이들을 깨기 위해선 관창보다 더 강한 희생이 필요했다. 그리고 보수의 정권인 박근혜가 결국 그 길을 택했다.

대한성서공회, 에티오피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2017년 3월 25일 오전 6시 20분, 사랑의교회(예장합동), 오정현 목사) 토요비전새벽예배에서 에티오피아에 암하러 성경 19,600부 기증을 감사하는 순서를 가졌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고대 기독교의 시초가 되어 3천 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보급률이 턱없이 낮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며, 뿌리 깊은 정교회와 신학 이단들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사랑의교회는 지난 2월 8일(한국 시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며 오정현牧사는 "쫓겨난 무리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환함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티오피아 성서공회 일마 게타훈 총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는 성경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 보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였다.

사랑의교회가 기증한 암하러 성경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교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복음화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불타올라

박근혜가 탄핵 당함으로서 우리는 목이 잘려 돌아온 화랑 관창보다 더욱 슬프고 분노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아마 앞으로 박근혜가 반대 세력으로부터 더욱 더 농락을 당하고 바닥까지 끌어 내려갈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우리의 분노는 더욱 사그라지지 않는다. 탄핵 당일에 있었던 슬픔과 허무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줄 알았지만 대한문은 다시 불타올랐다.

적들에 의해 참수가 되어 돌아온 박근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대선 일자가 발표될 것이다. 보수의 아이들은 목이 잘려나갈 순간까지도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수층 대 결집을 몰고 왔다.



보수층 대결집의 시작, 역대 그 어떤 보수 보다 더욱 강력한 보수 우파 정부를 세워야... 앞으로의 한국은 정말 풍전등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북 핵의 위기는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됐고, 정권은 좌파로 넘어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는 탄핵을 받아들였다. 일신의 안위를 위하고자 했다면 박근혜는 하야를 통해 안위를 보장받았을 것이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황산벌의 관창이 된 박근혜, 그렇게 잘려 돌아온 관창의 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유통일의 그 날이 멀지 않았다.

특별기고

둘이 하나가 되는 길(렘37:17)

국민은 가슴이 타고 목마르다. 계파, 정파, 영,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반 반쪽의 지도자들은 난무한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뜨거운 애국애족의 가슴으로 조국과 민족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가?

며칠 전 MBC방송의 기자이며 노조위원장인 김세의 기자가 한 보수 인터넷매체에 쓴 글 중에 좌파와 우파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먼저 좌파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가장 선한 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파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장 비 민주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독선에 빠져있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약자의 권익 최 우선순위를 하지만 포퓰리즘을 앞세워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누르려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우파의 가장 심각한하고도 큰 문제점은 비합리적이고 정의하고, 자기일 외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나서서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주로 방관자 역할을 하며, 철저히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러면서 좌파의 전체주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하면 이기주의요,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괜히 소란스러운 일에 끼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피해버린다고 개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파의 단결과 조직적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나서서 직접 행동해야 할 때는 모두 기피하고 도망하며,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 되면 소수리조자 죽여가며 침묵하는 태도가 우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지나오면서 좌파와 우파의 성향으로 국민들이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좌파는 촛불시위로, 우파는 태극기집회로 각자 자신의 성향을 죽고살기로 나타내는 가운데 심한갈등과 분열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모두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 분노와 갈등의 상처를 안고 대선이라는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좌파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주로 방관자 역할을 하며, 철저히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에 편승한 대권 후보자들 역시, 자신의 성향을 보다 선명히 하려고 경쟁적으로 분열의 원인인 이념적 성향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이 탄핵되고, 현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의 좌, 우파의 갈등과 사회적 정치적 혼란기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정치,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파가 싫어하는 우파, 우파가 싫어하는 좌파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공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



장승현 목사
대신백성총회 동서노회
소속 당인 평안교회

와 자식 간에도 진보와 보수, 즉 좌파와 우파로 구별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하루아침, 한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TV의 노인프로 프로그램에서 80세가 넘는 노인부부가 '할머니! 평생 함께 사신 할아버지를 네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질문했더니 할머니가 대답 "평생 웬수" 라고 대답해서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취미도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애 넣고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은 각자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요, 친지요, 이웃이요, 국민이니,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와 진보요, 좌파와 우파인 것입니다.

앞서 김세의 기자가 지적했듯이 좌파도 우파도 모두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평생 원수일 수밖에 없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그리고 정치적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이시대의 희망과 꿈, 비전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통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눈여겨볼만한 그릇들이 눈에 띄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계파의 지도자, 정파의 지도자, 영, 호남 지역을 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년이나 걸린 세월호 인양이 비록 늦었지만,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해 모든 유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불신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승현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파종진목사 이사장 : 조경수목사 사장 : 소진우목사 발행인 : 장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cp@hanmail.net / jtntvcp@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경음)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명미

오순절교회협의회 부활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국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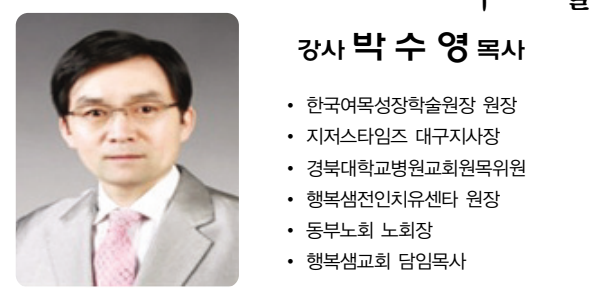
예배 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 도 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 하 성 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 하 성 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 하 성 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 하 성 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 도 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 도 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부활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정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사서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원
- 행복샘전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녀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일아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부활의 시

부활



하종우 (웨신 부총회장)

거룩한 혼풍이 대지를 덮을 때
산야가 은혜의 단비로 깨어나면
침묵의 공간, 돌무덤을 뛰어 넘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망의 여명을 여는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은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사신 구세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끝날 우리의
재림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최대의 소망이요 복음!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92일 동안 지속되었던 암울하고 참담한 국민정서와 좌절과 분노로 들끓었던 촛불민심이 위헌과 위법에 대한 위대한 정의의 승리로 일 단락 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력을 보았고 위대한 수준 높은 국민정신이 전 세계에 각인되었다. 2017년 부활절을 더 큰 희망과 기대로 기다린다. 새봄을 맞이하면

서, 부활절을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모든 국민은 엄숙히 다짐하고 금번 현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그동안 곳곳에 깊숙이 배어 있는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야 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요리조리 책임전가하며 거짓말을 쏟아내던 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거짓과 은폐를 덮어버린 진실과 정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

진실은 거짓을 눌러 이기고 정의는 불의를 굴복시킨다. 어두움은 빛을 부르고 빛은 어두움을 깨운다. 죽은 자는 산자를 기다리고 산자가 죽은 자를 부르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부활은 생명의 핵심적인 본능이다. 모든 생명은 부활의 DNA를 탑재하고 있다. 생명의 인자는 주인인 창조주의 무한히 입력

웨신총회, 부활절 메시지



웨신 총회장 이영풍 목사

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부활은 우주만물의 운행과 춘추추동, 생사 화복과 맞물려 있는 스모킹 건이다. 만물을 깨우고 살리고 키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최대의 소망이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자가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활은 지배한다.

금권과 물욕, 명예와 권함에 묶여 있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과 실제에서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다.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 소유를 내놓고 유무상통하여 나눔과 섬김으로 소유를 삼았고 숨어 있던 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다. 실의와 좌절에 빠

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 베풀고 입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이다.

부활은 불의하고 악독한 세대를 심판하는 정의요, 진실이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환골탈피하고 거듭날 것이다.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남기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세력들에게는 부활이 망연자실 두려운 사건이지만 양심과 정의의 편에서 실의와 낙담과 불이익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희의 대서사시요,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며 말라버린 가슴을 소생시키고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 가슴 뛰게 하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사모하고 대망한다. 부활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무덤을 찾아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 그리하여 잡자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잃어버린 목자상을 회복하는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나가자.

진 자들은 새함을 얻었고 부활을 노래하며 매 맞고 굶주리며 옥에 들어가기를 자처하였다. 작금의 목사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사고판다. 성전에서, 단체에서 기관에서 돈으로 바꾸고 사익을 채우고 기독교 권에 목을 메고 관원들에게 아첨하고 정치하면서 이름을 내려 하고 부활절 행사한다고 사람을 모으고 거리로 나가서 사익과 명예를 쟁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 대중을 모으고 돈 자랑하고 갈취하며 이름을 내고 신분을 세탁하고 정체를 위장한다. 촛불과 태

부활절 메시지

기쁜 소식

초대교회에 산재해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부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논쟁이 오가는 문제였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계획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못 봤다고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

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놀기 좋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뽑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갖춰져서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가져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애

사장 소진우 목사
(에베소서교회)

쓰며 때를 맞고 잠을 못 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2017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가예세이 - “만들어 가는 사랑”

시각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색안경을 끼면 세상에 보이는 색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기에 따라 생각하기 따라 사랑이기도 하고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관심 속에 가까이와 있지만 깨닫지 못해 모두 지

나치고 맙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높이 오르기도 하고 이리 저리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내 삶속으로 끌어 들여 행복해 합니다.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고 솔직한 사랑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사랑을 내 곁에 두시고 깨달아 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분께서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돌려 드립니다. 사진작가 이상중 목사(새움교회)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교계의 표준총회

총회장

이영풍 목사
(빛교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딤후2:8)

부총회장

김안식 목사
(설만한물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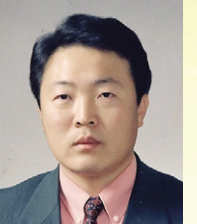
부총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부총회장

하중우 목사
(바울선교교회)

총무

신인창 목사
(성암교회)

서기

박우재 목사
(영도교회)

부서기

김영환 목사
(생명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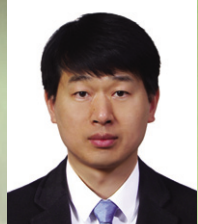
회의록서기

오상열 목사
(천안송리교회)

부회의록서기

김기출 목사
(명강교회)

회계

김정욱 목사
(충일교회)

부회계

최선녀 목사
(소망교회)

본 총회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에 몸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한 모범총회

각
노
회
및
노
회
장
무
순



노회장 강동호 목사



노회장 강천호 목사



노회장 이병만 목사



노회장 김정욱 목사



노회장 신인창 목사



노회장 연현호 목사



노회장 연남호 목사



노회장 김영환 목사



노회장 박우재 목사



노회장 황봉기 목사



노회장 김기출 목사



노회장 오상열 목사



노회장 허창범 목사

W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 835-2606-7 Fax(02) 835-2608 http://ws21.org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010-8602-3009

■ 靑松 건강칼럼 (543) - ICBM 농업과 쌀농사

쌀밥과 건강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삼시세끼’ 아침·점심·저녁 세 끼니(three meals)를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다. 이에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밥은 식사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어른께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친구에게 ‘밥 먹었니?’ 는 안부를 묻는 대표적인 인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 생활에서 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쌀이 남아서 비축미(備蓄米) 중 일부를 가축 사료용으로 방출하였으며,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3만5000ha(약 1억평)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쌀 생산은 420만2000톤으로 적정 수요량을 30만톤 초과했다. 한편 아직도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은 인민들에게 “이 밥(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목표를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다.

한 톨의 쌀이 만들어 지려면 농부의 손이 여덟 번 간다고 해서 쌀을 뜻하는 한자어 미(米)

자가 𪎐(八+八)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농업협동조합은 우리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쌀의 영양학적 효과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업박물관(Museum of Agriculture)내에 ‘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식문화(食文化)를 통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족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쌀 문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예로부터 주식으로 먹어온 쌀에 대하여 영양가의 결함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밥은 각종 영양소를 갖춘 식품으로 맛이 있고 소화 흡수율도 높다.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은 밥에서 열량의 대부분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일부를 섭취하고 있다. 쌀은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gluten)이 많이 들어 있는 밀가루보다 우리 건강에 좋다.

쌀은 산성식품으로 백미(白米, Japonica type)의 경우 100g당 에너지 372kcal, 수분 10.8g, 탄수화물 81.9g, 단백질 6.4g, 지질 0.5g, 섬유소 0.3g, 칼슘 4mg, 인 140mg, 철 0.4mg, 나트륨 66mg, 칼륨 163mg,

비타민A 0, 비타민B1 0.11mg, 비타민B2 0.04mg, 나이아신 1.5mg, 비타민C 0 등이 들어 있다.

밥은 지은 상태에 따라 그 성분이 일정치 않으나 대개 수분 62.5%, 단백질 4.34%, 지방 0.44%, 전분 32.03%, 무기질 0.24%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운 밥은 주성분인 전분(澱粉)이 소화가 잘 되는 알파전분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식으면 베타전분으로 변해서 소화가 잘 안되므로 밥은 식기 전에 먹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전통 한식(韓食)은 쌀밥에 국, 김치 등을 포함한 기본 음식에 나물, 채소, 생선, 고기 등 다양한 부식(반찬)을 곁들인 균형식(均衡食)으로 비만과 성인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식(健康食)이다. 그러나 매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쌀농사 포기 및 타(他)작물 이동 등으로 이어져 쌀 자급 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 주식(主食)을 외국에 의존하면 국가 식량안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빵이나 파스타 등 서양식단이 유행하면서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9년 79.4kg에서 2014년 74.0kg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1인당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9년 5.4kg에서 2014년 8.9kg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쌀 소비에서 가공용 쌀이 차지하는 비

중은 6.8%에서 12.0%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쌀 가공 산업 매출액(2014년)은 4조2000억원으로 전체 식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2008년(1조8000억원)에 비해 132% 급성장했다. 품목별로는 떡류(1조3900억원), 밥류(1조3300억원), 음료(1200억원) 등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쌀 가공식품 약 420종 중 대표 주자는 편의점 도시락(편도)이며, ‘편도족(族)’이 양산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메뉴도 다양해졌고 구성도 화려해져 직장인들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높다. 최근 쌀 소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쌀 가공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쌀의 맛있는 기적, 미(米)라클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쌀로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농협)은 우리나라 농가인구 275만명 중 227만명이 조합원이다. 지역 조합 수는 1131개이며, 농협 금융지주 계열사는 1365개 점포에 달한다. 농협은 축산 부문에 방역기계 450여대와 무인 헬기 및 농약 살포기계 150여대를 가지고 있어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농협에서 주도하여 전국의 모든 축사(畜舍)마다 방역을 맡는 농협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 김병일 회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쌀값 문제 해법으로 생산조절과 소비촉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생산 조절

측면에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며, 수입 사료를 대체하기 위해 논에 벼를 심은 뒤 벼이삭이 막 생길 무렵에 수확해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팔방미’라는 ‘국수용’ 쌀 품종을 개발했다.

바이오(bio)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삼성·SK·LG 등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농업에 따라 크게 3가지 색깔로 세분화 된다. 즉, 붉은색(의약)과 흰색(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녹색(농업)이다. 그동안 붉은색과 흰색이 바이오산업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녹색에서 신기술 개발과 연구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녹색(농업)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위 면적당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경작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화학관련 기업들은 용출(溶出) 제어형 비료로 대표되는 첨단 비료와 신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출 제어용 비료(CRF: controlled-release fertilizer)는 질소·인·칼륨 등 비료 성분이 오랫동안 서서히 작물에 공급되도록 하는 첨단 비료다. 기존 비료는 물에 타서 살포하거나 분말 형태로 살포하므로 효과가 20일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또한 비에 씻겨나가거나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작물이 비료 성분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료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뿌렸다.

일반 비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CRF는 캡슐을 이용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캡슐은 폴리에틸렌, 라텍스, 아크릴 등 고분자화합물을 섞어서 만들고 표면에 수증기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구멍들을 뚫는다. 이 구멍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지도록 제작되며, 캡슐 성분을 적절히 조정하면 구멍이 커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캡슐의 구멍이 커지면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 비료 성분이 물에 녹은 후 삼투압 원리에 의해 캡슐 밖으로 나온다. 비료 성분이 캡슐에서 나오는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절할 수 있다. 통상 벼를 재배할 때 34회 비료를 뿌려야 하지만, CRF를 이용하여 벼의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비료가 녹아 나오도록 조절하면 한 번만 뿌려도 된다. 따라서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CRF는 곡물, 과일 등 식용작물 뿐 아니라 잔디, 원예작물 등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CRF 가격은 일반비료에 비해 2~3배 높다. 그러나 논 1000㎡를 기준으로 일반 비료는 70kg가 필요하지만, CRF는 15kg이면 충분하다. 영국 농업시장조사기관 ‘호티컬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CRF 시장 규모는 27억4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에 달하며, 매년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요즘 농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ICBM>이다. ICBM이란 원래 군사 용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미국 본

토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미사일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뜻한다. 즉 <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모바일(Mobile) 환경 등의 앞 글자를 딴 약칭(略稱)이다.

‘ICBM 농업시대’에는 햇살 좋고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비닐하우스 창이 열리고, 날이 추워지면 자동으로 온열기가 켜진다. 또한 컴퓨터가 수십년치 날씨 기후 자료를 분석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해충(病害蟲) 등을 미리 방제해주는 일도 해낸다. 결국 미래 농사는 농부가 직접 논밭에 들어갈 일이 없어지므로 농부는 다만 컴퓨터가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전 세계 농업 강국들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우리나라 곡물(穀物) 자급률은 23.8%(2015년)로 해외 의존도가 무려 76.2%에 달한다. 곡물별로 보면 쌀(101%)을 제외한 콩(32.1%), 보리쌀(22.3%), 그리고 밀은 1.2%로서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식량안보(食糧安保)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쌀 가공 간편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쌀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가공 기술이 발전할수록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탄생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한국인들이 국제 불청객 돼야하나

국시를 반공으로 바로 잡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5.18뿐이다

한국인남성,여성 모두 해외원정 성매매 1위

최근 필리핀에 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9명(2명은 공기업 간부)이 국제언론을 부끄럽게 장식했다. 이들은 최소 6년에서 12년의 형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 남자들은 비단 필리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단체로 다니면서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국제마신 줄이려던 현실적으로 매춘합법화해야

이승만 정부 때에는 매춘을 불법화 했었다. 그래서 매춘행위는

가정집들로 파고들었고 성폭력 행위가 범람했으며 성병이 유행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합법화했고, 그로부터 가정도 보호되고 매춘부의 건강도 지켜지고 성병도 퇴치됐었다. 그런데 인격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노무현이 국내 매춘을 불법화했기 때문에 외국으로 터져 나가는 것이다.

해외원정 매춘 1위의 나라가 무슨 얼굴로 일본 위안부타령

2016년 미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매매지는 전체의 23.5%, 태국 여성

이 11.7%, 페루 10.0%, 멕시코 9.6%다 한다. 이처럼 한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들이 해외 성매매 원정에서 톱을 달리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자기기만이고 자기수치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린다. 위안부 소녀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빨갱이들이다. 위안부 문제를 간판으로 앞세워 반국가 활동과 반일·반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대협이 그 정점에 서 있다. 위안부 소녀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먼저 한국인들의 원정 매춘 자화상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해외마신꺼리들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시끄럽다. 물론 중국인들은 더 한 모양이다. 남의 나라 관광자원에 낙서를 하고 글자를 조각해 넣는다. 국내 안보문제인 사드 배치를 놓고 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안보의 적국인 중국으로 날아가 간섭해 달라 하는 이상한 나라, 아마도 한국 하나 뿐일 것이다.

탄핵에 관련된 온갖 추태들이 외신들을 타고 나갔다. 추태들은 국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의 유수 언론의 홈페이지에까지 들어갔다. 탄핵에 대한 댓글전쟁을 벌여 외국인들로부터 불쾌하다는 불민들을 자아낸 것이다.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빨갱이

들은 유엔본부에 편지를 써서 한국정부가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기 북한이 소행이 아니라며 발광들을 했고, 유엔본부 담당관들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 다 보겠다”며 혀를 찼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에 걸린다고 100일 이상 광화문 거리를 점령하면서 국관을 벌였다. 미국이 전두환을 사주해 5.18 학살을 배후 사주 했다고 미국 문화원들에 난립하여 방화들을 했다.

치기주저들,국시바로잡고 국제적신분놓이지호소해야

지금의 대선주자들이 외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 ‘돈을 나누어 주겠다’,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는 등의 형이하학적인 포퓰리즘

언어들뿐이다.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다. 이는 박정희가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으로 양단되어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집단과 죽기살기 식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당위다.

많은 애국진영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정체성 확립이 중북 빨갱이를 청소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빨갱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빨갱이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는가?

우리나라 국시는 누가 뭐라 해도 반공이다. 반공,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일부가 뉴라이트 족속들이다. 이른바 전직 빨갱이들인 것이다. 이

들이 반공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아직 전향하지 않았다는 징표다. 국시를 반공으로 바로 잡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5.18뿐이다.

구체적 플랜은 내놓지 않았지만 ‘중북 빨갱이를 척결하겠다’는 후보들은 더러 있다. 그러나 진흙에 처박힌 ‘국가 위상’(National Identity : 국가의 신분)을 드높여 국가적 프라이드(National Pride)를 높이겠다 호소하는 후보는 아직 없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 축 부활 예수 님이 사셨네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이희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밤 예배 : 저녁 8:00

금요철야예배 : 밤 11:00, 새벽예배 :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 (토)오후 6:00

● 주소 : 인천 서구 창고개로 336 (구.가좌동 4-24) ● Tel) 032-575-1654 Fax)032-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한교연 선교위원회, 2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3월 18일(토) 오후 2시 제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다.

한교연 선교위원회(위원장 허상봉 목사)가 주관하고 동대전성결교회 후원해 열린 이날 진중세례식은 제25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병들은 입대후 주일예배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앞으로 십자가정병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신병교육대 사령관교회에서 장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진중세례식 예배는 사단군중참모 김순규 목사의 인도로 25사단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류중섭 장로(동대전성결교회)의 기도, 시온양성부의 특송, 김효종 목사(호헌증경총회장 한교연 법인이사)의 '선택과 희망' 제목의 설교에 이어 유모세 목사(70년대 군종목사)의

세례사약후 150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 김순규 목사의 공포, 김옥자 목사(한교연 법인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효종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세례를 받는 장병들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택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의 인도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한교연 선교위원장 허상봉 목사

가 시무하는 동대전성결교회는 이날 세례를 받은 장병들에게 기념으로 성경과 십자가목걸이, 핸드크림, 불펜 등 선물세트를 선물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600여 장병들 모두에게는 햄버거를 나눠주었다.

한교연 선교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도 25사단 신병교육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중세례식을 가졌다.

동성애 위협에 몸살앓는 美젊은이들

다음세대 회복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美정부 질병 통제 센터인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지난 1991년부터 25년간 조사해 온 고등학생 성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여년간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미국 청소년이 85% 급증했고 아직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결정 안 했다는 청소년은 53% 급증한 반면에,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청소년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성애 운동가들, 할리우드, 교육자 및 지난 오바마 행

정부 시절 연방 정부의 노력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1천6백만 명의 미국 고등학생 중 1백만 명이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급증한 고등학생 동성애자 수는 동성애자 청년으로 이어진다. 2012년 어린 동성애자 인구는 18-36세가 43%였고 2016년에는 58%로 증가했다. 모든 성인 인구 중에서는 5.8%에서 7.3%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동성애 행진, 디즈니 아동 프로그램의 "작은 동성애 메시지", CDC 추천의 학교 동성애 클럽 등으로 미국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새로운 "민감한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은 여성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겉핥기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년 전에는 동성애자 대부분이 남자였

는데 지금은 55%가 여자로 나타났다. 동성애를 "시민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피해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동질감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 미국 내 젊은이들이 동성애 문제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가고 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때다.

피종진 목사 초청 4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대안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제1차 부흥성회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2(주일) 오후 3(월) 오후 3(월)~5(수) 7(금) 철야 8(토) 오전 10(월)~12(수) 13(목) 오전 17(월) 오전 17(월) 오후 17(월)~19(수) 20(목) 오전 21(금) 오전 21(금) 철야 22(토) 오전 24(월)~27(목) 27(월)~29(수)	영동 호탄정교회(한재갑 목사) ☎ 010-2101-3998 부천 소망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광주 살롬교회(원정 교정임 목사) ☎(062)432-6392 천안 임마누엘교회(이규철 목사) ☎ 010-3428-9182 서울 한미교회(서진경 목사) ☎ 010-3504-8275 군산 사랑제일교회(오만근 목사) ☎ 010-2972-8141 가평 강남교회(원정 김성광 목사) ☎(031)584-100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과 특강 장소: 은양관광호텔 ☎(041)540-10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강병두 목사) 장소: 서울 송파행복교회(김학규 목사) ☎(02)3401-5991 홍천 팔복산국제기도원(박정숙 원장) ☎ 010-2228-0688 서산 대산순복음아름다운포도원교회(오재우 목사) ☎ 010-3016-3127 평택 송탄소망교회(최성규 목사) ☎ 010-3932-3927 오산 복있는교회(신상철 목사) ☎ 010-7625-0747 대전 제일교회(김정수 목사) ☎(042)524-910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부흥사회(대표회장 윤금중 목사) 수원회점소: 제주도 (사무총장 위대환 목사) ☎ 010-3781-5384 서울 침례교회(김병열 목사) ☎ 010-7788-4611
--	---	--

대형교회 세습논란에 개혁단체 변칙세습 비판

명성교회, 새노래명성교회와 결국 합병 가결 돼

대형교회 세습 문제, 해결점은 없고 비판의 도마에 또 올라

지난 3월 13일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정했다. 결국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날 명성교회 공동의회는 8104명이 참석해 먼저 새누리명성교회와 합병하는 안건이 진행되어 투표결과 찬성 5860표, 반대 2128표, 무효 116표로 의결정족수 2/3를 넘긴 72.3%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어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안건 역시 찬성 6003표(74.7%)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964표, 무효는 137표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와 합병할 의사가 없고 후임으로 갈 생각도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래명성교회 관계자는 "19일 예배 광고시간에 김 목사가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명성교회 후임으로 갈 생각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교계 개혁단체들은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



병을 '변칙 세습'으로 규정하고, 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교회합병 결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유화하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예상통합 총회의 세습방지법을 교묘하게 피한 변칙세습이라고 지적했다. 예상통합 교단은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에서 교회 세습금지법을 전격 가결한 바 있다. 교단 규정에는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

와 그 배우자는 연속해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만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교계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명성교회의 변칙 세습에 주목하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재벌 뽐내는 명성교회의 세습 움직임'이라고 지적하며, '세습금지법을 만들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희망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는데, 교단 대표 교회가 그 범법자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멕시코 의료선교 통한 연합 복음사역

남가주한인장로회 ·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함께 섬겨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한철수 장로)에서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선교를 통해 멕시코를 섬겼다. 백문철 장로, 하기연 장로, 한철수 장로 부부, 김용식 장로, 박남수 장로, 김영국 장로, 김광배 장로, 김

득원 선교사 등 14명이 참가했다.

지난 11일 엘 토로에서 출발한 팀은 티화나에서 의료사업 중인 한의사 2명(이민희 한의원, 제임스 손 한의원)이 합류했다. 그리고 박명숙 간호사 내외와 이현숙 미용사 등도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한편, 이들 의료선교팀들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Luz de Amor Church(제동호 선교사)와 교도소와 재활원(조성현 선교사) 두 곳을 방문해 섬겼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금과 의료품도 전달했다.



▲의료선교를 마치고 참여한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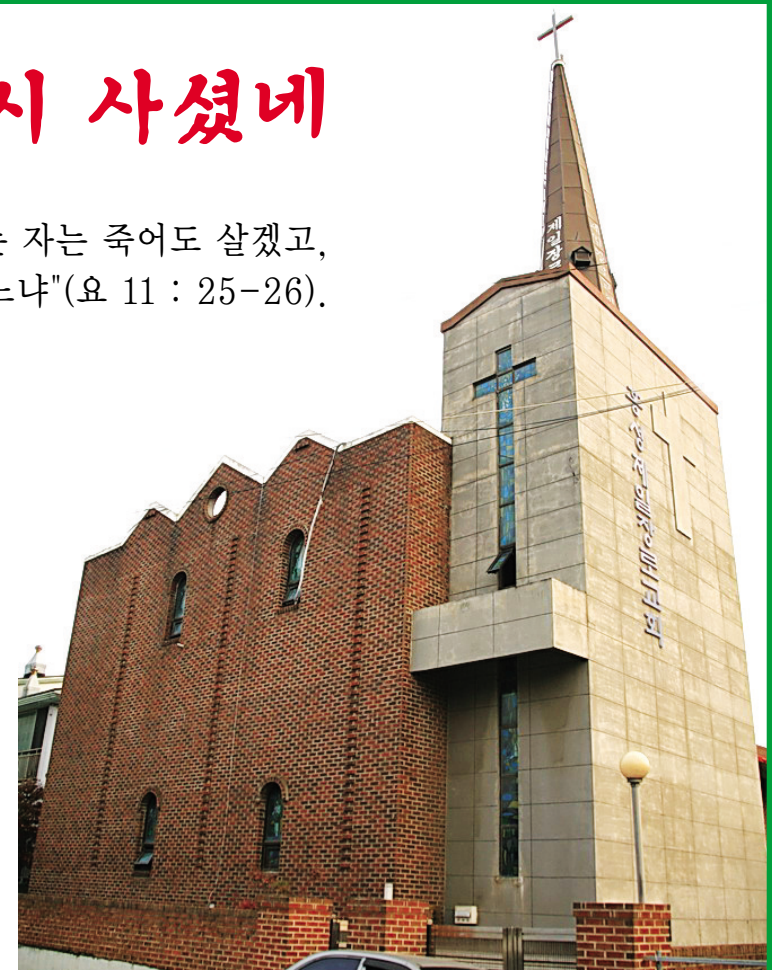


총기연 제10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취임(홍성제일교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 : 25-26).



홍성제일교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46번길 36-8 교회 ☎ 041)634-0441 목양실 633-6146

요한계시록 3장 강해(26)

하늘 보좌에 올라간 순교한 자들은 누구인가?

(지난호 이어서...)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본문 말씀이 킹제임스 한글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었는데 개역성경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하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성경대로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면제한다.’ ‘사면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역성경의 잘못 번역된 1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글성경의 “면하다”는 영어성경에 “keep”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keep”는 특정한 상태·위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글성경과 함께 번역하려면 escape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이어 성경에는 더욱 분명하게 “테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핍박과 죽이는 역사 안에서 이기게 하는 것,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순교 안하고 도망가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환란 안에서, 또는 풀무불에 떨어졌으면 그 풀무불 안에서 순교하게 하여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헬라이어 “테레소”는 환란 안에서 순교 통해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성경이나 원문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개역성경의 “면하게”한다는 말씀에 집착할 수 없는 것은 계시록 1장부터 전체의 구조와 내용이 환란 중에 되어 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다 끝난 후 유머가 심판을 받고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전체만 읽어보면 반드시 정답이 나옵니다. 환란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시작됩니다. 환란 중에 믿음으로 견디면서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그대에 “지킨다”는 말씀은 환란 안에서 안 죽게 지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순교가 아닌 휴거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됩니다. 공중에서 재림 주를 영접한 해도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입니다.

살전 4:16-17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고, 그때 이 땅에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에서 더욱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지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지구 속에 있는 맨틀이 전부 올라와서 지구표면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맨틀 속에서 대리석 물이 지구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오면 대리석 길이 생기는 것이고, 금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금으로 뒤덮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서 큰 지진과 함께 지구가 폭발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에덴동산같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편 예비처로 인도 받아 양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대로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계 16:12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는 것입니다. “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오는 왕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의 왕들은 계 16:14에 나옵니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그 왕들은 하나님의 종 144천과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하여 재림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는 것이며, 그 때 살아남아 있는 자, 즉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재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계 16:15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계 16:15에 “보라, 내가 오리니”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직접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내가 간다에로코마이”는 말씀

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 1:7에 “내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하였고, 두 번째로 계 16:15에 “내가 속히 오리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내가 오리니”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리니 에로코마이”하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경성해서 그를 맞이하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성령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전 전에 휴거되는 일도 없고, 환란 중에 끝나갈 무렵에 휴거되는 자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흰 세마포인 신부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옷이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흰 옷입니다. 순교한 자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계 7:9의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 보좌에 올라간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 똑같은 계 7:9의 말씀을 예비처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두 휴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말은 많은 신자들을 미혹, 영을 죽이는 길이 됩니다. 은혜시대에 쓰임 받고 있는 종들, 목회자들이 환란 날에 들어가서는 계시록의 참 예언의 말씀인 이것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면류관은 무엇인가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예언의 말씀과 옳은 신부의 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진리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에 따른 상급과 영광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면류관입니다. 그가 이미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따른 상급과 영광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 기정사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빼앗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8)

(지난호 이어서...)

3. 기쁜 소식 (1)

(가)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주님께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1서 5: 4~5).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쓴 뿌리란 원죄를 말하며, 기 속에 있는 죄도 부모의 기를 통해 내려 온 죄로 결국은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조차 성령님은 들어가지 수 없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지자들 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 죄의 세력과 현존하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 4. 기쁜 소식(2)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 원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생령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 63)고 하심 같이 생령인 아담이 영생활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6~17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영생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원수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고 혼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결국은 몸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따 먹었고 그로 인한 결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란 아담이 처음 범죄한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해 육체의 일들과 자기 의, 자기 생각과 이론과 틀이 생긴 것인

니다.

영려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나타난 자범죄만 회개함으로써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그 뿌리의 열매만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법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의 쓴 뿌리가 되는 원죄(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죄)는 회개치 않고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백성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렘 2: 19)고 하심 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우리의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 우리가 버린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돌아가(회개하여) 믿고 의지하며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것과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가 버린 말씀(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율법 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게 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 24).

이제 우리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령이었던 상태로 돌아 간 것은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축 부 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준복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경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마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교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원로 노은총 목사

집회안내

-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회의 주관)
-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매일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선형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상 “구원 서정의 5단계” 12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나호 이어서...〉

2. 죄와 회개

1) 내가 왜 죄인인가?

사전에 보면 ‘죄(罪, Sin)’란 국가나 사회 또는 교단과 같은 집단이 규범으로 정해 놓은 법률, 도덕, 종교적 규범을 범하는 것, 즉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죄가 사그라지기는커녕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죄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글(활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습법으로 내려오던 법들이 활자와 되고, 시대마다 필요한 법이 추가돼 오늘날 현대법전들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죄와 법의 근원은 성문법이 생기기 전 태초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류 최초의 법과 죄는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법을 주셨다. ‘에덴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명령이었다. ‘만일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수락하여 생방간의 최초 인악법이 제정된 셈이다.

그 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하나님 자신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막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그분은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시므로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들은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본적 사고와 방법대로 살고 있으니,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행위법인 실정법만을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심 법까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당신이 죄를 지었다’든지 ‘죄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왜 내가 죄인인가?’ 하면서 따진다. 그럴 수 있다. 어느 관점,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실정법적인 죄를 지어아만 죄를 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 지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어겼어도 걸리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법은 행위법으로, 실제 행동한 것이 증거로 채택될 때에만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았지 법을 어겼다면 죄를 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감춰진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발각되어도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막무가내로 부정한다. 양심조차도 화인 맞았기 때문이다. 세상 법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질만 죄라고 보지 않는다. 아주 작은 일, 예를 들어 길에 침만 뱉어도 죄요, 남을 짜려보아도 죄요, 나 편한 대로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 벗고 다녀도 죄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개를 잠시간 집에 혼자 두어도 죄요, 어린이를 차에 혼자 놔두어도 죄요, 개를 때려도 죄다. 빨래를 자기 베란다에 널어도 죄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법으로 죄를 규정해 놓았지만,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세상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조금씩은 죄를 범하면서서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의인처럼 살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서운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은 쫓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분은 전능자이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 지금도 그분은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때에는 교실 책상 위에도 올라가고 교탁 위에도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칠판에 욕도 써놓고 난리를 친다.

그러다가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얼른 자리로 돌아가 앉전히 앉아 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바른 길로 인도할 자가 없으면 제갈 길로 간다. 꼭 ‘들나귀 새끼 같다’(욥 11:12)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다.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다. 아이들이 엄마

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마냥 좋은 것과 같다. 나를 마귀의 발이 되지 않게 지켜 주시고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보호해주신다. 나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이냐 다 할 것 같지만 인간은 아주 연약하다. 혼자 두면 방탕하게 되고 또 연약하여 천동번개만 쳐도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다.

2)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신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다. ‘이것이 왜 죄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식이 자기 부모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큰 죄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 부모와 자녀보다도 더 큰 의미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자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돈 한 톨 안 내고 마음대로 밟고 다니며 숨 쉬고 즐기고 있지 않는가.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그 말씀은 진리이므로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기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신 28:1, 6). 셋째는 마음속으로 저지른 것도 죄라고 하셨다(마 15:19). 세상에서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을 죄로 보지만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생각을 지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까지도 죄로 보신다. 왜냐하면 세상 죄는 마음의 생각이 표출된 것일 뿐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마음속에서 간음하고,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예수 믿기를 거절한 죄이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어 그들이 합당치 못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장 29-3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 부모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0)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나호 이어서...〉

7. 일제치하의 교육상황

1)일제 전반기 교육상황

1910.8.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 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대한제국이 사라졌지만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한국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라의 국력이 미약하여 속국이 되었지만 우리민족의 가슴에 심어진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사랑하는 교육의 열매는 자라고 있었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뽑기 위하여 식민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를 도우며 헌신했던 선교사들도 국가적 정치적 마찰로 본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 을 할 수 없게 되자 한 팔작 되로 물러나게 물러야한다. 그리고 분명이 역사에 기록하여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100주년행사를 치루면서 이 역사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때 고문 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일본은 어떻게 사과하고 위로했는지 궁금하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한국의 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민족주의의 온상이라 여겨왔고 그 숫자가 공립학교보다 많으므로 사립학교를 통제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제가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운영주체들을 분쇄하기 위한 조작된 음모였다. 그들이 발표한 사건내용인 즉 조선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찌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사전 발견하여 이에 연루된 105인을 적결하는 내용이다. 이사건의 공식명칭은 “데라우찌총독 모살 미수사건”이다. 일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가 105인이었다.

이사건 연루자 기소자가 123명중 82명이 기독교인 이었다. 일제가 한국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지나가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교육을 탄압하며 신앙의 자유를 탄압했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최근 일제의 정신대로 끌려가서 모진고통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할머니며 어머니들의 보상 문제가 어정정하게 넘어가려한다.

분명한 역사적식이 없기에 어정정한 타협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면서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정직한마음을 가지고 역사비리보고 인식해야한다. 우리기독교가 이제 미국의 선교의 바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이지자인하신교회)

톤을 받아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하는 지금 우리기독교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부르짖어야한다. 당당하게 있었다. 우리를 도우며 헌신했던 선교사들도 국가적 정치적 마찰로 본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 을 할 수 없게 되자 한 팔작 되로 물러나게 물러야한다. 그리고 분명이 역사에 기록하여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100주년행사를 치루면서 이 역사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때 고문 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일본은 어떻게 사과하고 위로했는지 궁금하다.

2)일제하의 교육정책

첫째 독립사상 억제와 우민화 정책 1919년의 통계를 보면 일제는 우리민족에게 우민화정책을 펼친 것을 발견 한다. 사상과 인성과 인문학의 교육보다 너희는 가난 하니 일찍 기술교육을 배워서 먹고 살아라. 지도자를 양성하지 말고 부러먹는 하부계층을 양성 하는 것이다. 1912년에서 8년만인 1919의통계이다. 국공립학교 경우 보통학교는 6개면에 1개소 정도 고등보통학교는 남자3개교 여자1개교 밖에 늘리지 않았고, 전문학교는 이름만 바꾸어 3년제3곳 4년제1곳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부러먹기 좋은 초등수준 까지만 교육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이었다.

둘째 기독교 사립학교의 통제정책이다 당시 교회들이 운영하던 사립 초등학교들을 탄압하고 보통학교를 늘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식민화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 이었다. 셋째 교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제에 순종하며 일제의 정책에 따르는 교원을 양성하고 교장은 일본 사람들로 교체 감독 하게함.

넷째 교육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지 못 하게함. 성경, 지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리를 통해 전 세계 각 나라의 영역을 가르치면 이웃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만행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르쳐 왔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과거 찬란한 문화와 강하고 힘 있는 지혜로운 민족이었음을 알려주며 중국, 일본의 속국이 아니고 동방의 빛을 비추는 찬란한 민족임을 가르쳐왔다. 세계관과 역사관을 담아버림으로 민족의 미래를 담아버림. 결국 우리민족은 자기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식민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사립학교 규제를 정하여 조선총독부가 만든 교과서와 커리큘럼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학교를 운영 하게함. 그러나 기독교학교들은 계속해서 학교의 이념과 정신을 고수하며 일제에게 10년이란 유예기간을 요청 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유혹에 학교들이 생존해야하기에 무력에 따르게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나 학교마저 문을 닫으면 앞으로 의 기회마저 없어지기에 기독교들이 자신 폐쇄하거나 일제의 통제아래에 들어가 새로운 인가를 받게 된다. 기독교의 발전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과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설립자, 이사, 교장, 교사들 까지도 인가를 받게 함으로 완전히 학교를 총독부가 장악하고 제5항의 교육과정 에서도 총독부의 지시대로만 가르치게 되었다.

3) 일제의 인가를 받기 시작한 기독교들

일제의 “개정사립학교규정”이 발표된 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헨켄스(Miss ida Hankins)라는 남강리교 선교사의 보고서는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선교부에 의해 이만큼 자란 매일학교 제도는 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관리해 왔으며 매우 큰일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를 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제 통치중에도 학생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축 부 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용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대한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성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일예배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곡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대한예수교
장로회

벤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도회 저녁 9:00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측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담임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담임 광건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선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단순한 법인이 아니라, 동성애 활성화로 가는 길이다

지난 2014년 모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비종양성 등을 해치므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후에 그 공무원은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신청과정에서의 일들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인권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단체는 포기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관할권 지정 요청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 단체는 행정소송을 하여, 지난해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다.(내용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문제가 아니라, 관할 부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임)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정과 법인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편성, 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

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올 해초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등 시민 단체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반대 서명지 4만여 장을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시민 단체들이 염려하는 것도, '동성애 단체가 법인화 되면, 정부에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이끌어 내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동성애 단체의 관할과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이를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도 동성애 단체에 대한 관할권 지정이나 법인 설립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법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어야 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질서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혼란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막아 주는, 최후 보루(堡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의 길을 열어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 간에 '역차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12회 자랑스러운 연신원상 시상식...

7개 부문 12명 수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 받는 귀한 목회하기를 축복"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설동욱 목사)는 올해로 '제12회 자랑스러운 연신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13일(월) 오전 11시 연세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거행한 이번 시상식에서 제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실무부회장 권영익 목사의 기도와 서기 엄기영 목사가 성경봉독 후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함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명예회장 피종진 목사가 설교했다. 은혜의 설교에 이어 나라의 안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실무부회장 김찬영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고 부회장 김용철 목사는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학교발전과 총동문회를 위해서는 실무부회장 허인자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헌금기도는 회계 이화평 목사가 했다.

제2부 시상식에서는 사무국장 서재은 목사가 사회를 담당했고 총동문회장인 설동욱 목사가 시상식에 대한 감사 인사말과 수상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번 제12회 자랑스러운 연신원상 수상자는 부문별로 먼저 신학부 부문 대상은 유상현 교수(연신원)가 수상했고 목회부문 대상은



이은철 목사(임마누엘교회)와 조인호 목사(울산원복교회) 그리고 김삼미 목사(운수성문교회)와 김종우 목사(김포동산교회)가 수상했다.

부흥사부문 대상에는 최영식 목사(사랑교회)와 김병호 목사(삼각산교회) 그리고 김우경 목사(금속전원교회)가 수상했으며 선교부문 대상은 김한기 목사(은혜성산교회)가 수상했고 여성지도자부문 대상에는 박양임(세계비전교회) 목사 그리고 교육부문 대상에 조예환 목사(부천갈보리교회)가 수상했고 끝으로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유명희 목사(순복음멜로교회)가 수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축사 시간에는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와 증경회장 엄정목 목사 그리고 대학원장 유영권 교수가 축사를 담당했고 격려사는 증경회장 김병문 목사와 증경회장 배진구 목사가 담당했다.

이어 총동문회장 설동욱 목사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유영권 대학원장에게 일천만원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고 직전회장 엄바울 목사의 축도로 시상식을 끝마쳤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설동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하시는 동문 목사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 받는 귀한 남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축복했다.

또한 설동욱 목사는 수상자들에게 연신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자들은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그동안의 목회와 사역에 대한 노고를 위로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을 것을 결단하였다.

광림교회, 논산 연무대교회에 6억원 건축후원금 전달식

세상에서는 교회와 멀었던 청년들도 군대에 가면 군인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군대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군인들 중 가장 많은 훈련병이 찾아가는 군선교의 심장부다. 그러나 예배당이 협소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자리가 없어 일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는 그대로 맞고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연무대교회는 수용인원의 한계와 낙후된 건물로 새로 건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0년 1월 군목파송교단장회의에서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사업>을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1951년~2011년) 기념사업'으로 채택 결의하고, 2012년 2월 건축후원회를 조직, 같은 해 10월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 공사는 소요예산이 약 160억 원이 드는 공사다.

광림교회는 한국교회의 군선교를 위해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6일 주일 2부예배와 3부예배에서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건축위원장 김진영 장로에게 6억 원을 전달하였다.

김진영 장로는"광림교회는 그동안

군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연무대교회 건축을 위해 광림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금해준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헌금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그릇이 큰 목회자이고, 광림교회 성도를 역시 담임목사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광림교회는 군선교를 위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연무대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육군학예사학교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입소해 훈련을 받고 있는 ROTC 학군사관후보생들을 위해 매년 여름 예배 및 위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교회 건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5사단 상승교회를 비롯, 25사단교회, 북한군의 공격으로 무너진 해병대 연평교회를 재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

또 2015년에는 28사단 80연대 예담교회를, 2016년에는 1사단 전진제일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군인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통일성취기도회'를 1999년부터 시작해 18년 동안 진행하며 전교인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광림교회의 군선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산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개최

출산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충남 '아산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가 지난 26일 오후부터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에 소재한 아산택민교회(담임목사 이정팔)에서 29일 저녁까지 진행되었다.

아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이정팔 목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수훈 목사(당진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당진동일교회)가 저녁집회를 인도하고,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가 '성시화운동 특강'을,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전도훈련과 전도실천을 인도하고, 최호자 권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들레기도팀장)가 '기도특강'을 인도했다.

27일 저녁집회는 박경옥 사모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본부장 이정팔 목사의 인도로 이경태 장로(동선교회)의 기도, 이범영 안수집사(운양CBMC 회장)의 성경봉독, 코람데오 찬양대의 특송에 이어 이수훈 목사가 고전 9장19절을 본문으로 "종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17년째 출산운동을 강조하고 "연애나 결혼할 때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가정이 깨질 때는 국가가

개입한다. 국가가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가가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출산한 아이를 받아주는 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출산의 문제에 가장 고민하는 것은 돈인데, 교회가 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전용태 장로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전하는 3전운동이다. 복음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통해 행복한 애나 결혼할 때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가정이 깨질 때는 국가가



호자 권사는 기도특강에서 "교회 부흥이 국가 발전이고, 교회 침체가 국가 침체로 이어진다."며 "성시화운동은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에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옹호하고 조정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전 장로는 "동성애문제를 옹호 조정하는 충남 도민인권조례와 시군 인권조례를 폐지 청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사셨네 예수다시 사셨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천복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북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영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황홍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회신학대학원	대구영남신학원	경남신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학장 황 홍 주 목사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어리석은 자
성경: 시편 53:1절
찬양: 439장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신에게 불행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을 경외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시편 53:2-3절
찬양: 253장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다고 계산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가운데서 힘써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 시편 53:4-5절
찬양: 342장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랑하며 당당해도 성도는 반드시 원수들을 이기게 되며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징벌은 뼈가 부서져 흩어져 버릴 만큼의 강력하고 두려운 징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악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원의 기쁨
성경: 시편 53:6절
찬양: 433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식입니다. 사실, 죄와 사망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고난중의 기도
성경: 시편 54:1-3절
찬양: 452장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왕으로 작정하시고 기쁨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며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변호해주시기를 의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현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합니다.

제목: 원수의 멸망
성경: 시편 54:4-5절
찬양: 348장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도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치려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원수들을 재앙으로 갚아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의롭고 시종일관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시종일관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낙헌제
성경: 시편 54:6-7절
찬양: 50장

본문에 나오는 '낙헌제'는 '자원함으로' 혹은 '자원 제물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반적인 속죄의 의미 외에 예배와 헌금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무적 제사나 형식적 제사, 즉 의무적 예배나 형식적 헌금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원함의 예배와 헌금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탁식중의 기도
성경: 시편 55:1-3절
찬양: 382장

본문의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위협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잃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굽히다'는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원수들의 위협과 핍박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잃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제목: 주님의 평안
성경: 시편 55:4-8절
찬양: 419장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리라"로 말하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리라"고 합니다. 성안에서의 생활이 산이나 광야보다 편리한 점은 있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현실도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며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인의 소망
성경: 시편 55:9-11절
찬양: 418장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 12:19) 운유하고 선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삽시다. 악인들이 득세할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호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원한 친구
성경: 시편 55:12-15절
찬양: 88장

다윗의 원수는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이전에 그와 함께 의논하던 상대였고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던 친구였으나 이제 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같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같이 다윗의 친구는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자의 악행에 보응하십니다. 결국은 두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배신에 괴로워말고 끝까지 갚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르짖음
성경: 시편 55:16-19절
찬양: 93장

다윗은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평 중에, 심리적 안정이 없었을 때, 마음이 심히 아팠을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단상

칼럼 두란노교회 곡완근 목사(사진작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도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생각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성경구절이 바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마7:7> 말씀인 것 같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도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탐심 때문에 필요한 것과 이루고 싶은 일들도 많은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고난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팔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와 된다고 말씀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니다. 17절에 '근심하며 탄식했다'는 것은 '불평하며 외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적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분께 아뢰며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목: 자녀답게
성경: 시편 55:20-21절
찬양: 488장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은 화물을 깨뜨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연약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기쁨보다 유해도 실상은 뾰흔 칼이며 그의 말은 부드러운 것도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시기와 미움, 분노와 싸움을 다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눈앞에 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일용할 양식)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마치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자면서 부르짖는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여러 날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난감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부활

소진우 목사 2016년-2017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 | | | | |
|-------|------------------------|-------|-------------------|
| 31-1 | 연탄사 연수원 수련회(대회장조경수 목사) | 30-4 | 미안리교회(정기찬 목사) |
| 1 | 오산리교회(정기찬 목사) | 7-9 |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
| 3 | 성산수양관(윤호근 목사) | 14-16 | 정동진 신성리교회(최낙현 목사) |
| 7-11 | 온누리복음회(양기호 총재) | 20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4-15 | 교단총회 | 28-30 | 반석교회(권순일 목사) |
| 14-16 | 군자대교회(이희수 목사) | 31 |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
| 20 |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 |
| 21-24 | 임직후보자교육 | | |
| 27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

2015년 10월

- | | |
|-------|----------------|
| 6-8 |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
| 12-13 | 정기노회 |
| 18 |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
| 19-21 | 영광교회(임승원) |
| 25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5-29 |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

2015년 11월

- | | |
|-------|----------------|
| 2-5 | 광산수양관(변민석 목사) |
| 9-11 |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
| 16-18 |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
| 22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3-25 |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

2015년 12월

- | | |
|-------|-------------------|
| 30-4 | 미안리교회(정기찬 목사) |
| 7-9 |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
| 14-16 | 정동진 신성리교회(최낙현 목사) |
| 20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8-30 | 반석교회(권순일 목사) |
| 31 |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

2016년 1월

- | | |
|-------|----------------|
| 4-8 |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
| 11-13 | 환돌교회(신현덕 목사) |
| 17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8-21 | 예년교회(양화목 목사) |
| 24-27 | 선일교회(이판석 목사) |

2016년 2월

- | | |
|-------|----------------|
| 1-4 | 간림산기도원(이목관 목사) |
| 8-11 | 광운기도원(한배 목사) |
| 14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5-17 | 대구열린교회(류정호 목사) |
| 22-26 | 세계선교사대회 |

2016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의달

2016년 4월

- | | |
|-------|----------------|
| 3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4-7 |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
| 11-12 | 정기노회 |
| 12-14 |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
| 18-20 |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
| 25-27 | 양문교회(노희석 목사) |

2016년 5월

- | | |
|-------|----------------|
| 2-5 | 영광교회(조경수 목사) |
| 8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9-11 | 한우리교회(윤홍준 목사) |
| 15-18 | 예복교회 봄철부흥성회 |
| 23-26 | 초대중교회 |
| 30-2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2016년 6월

- | | |
|-------|------------------|
| 30-2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5 |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
| 6-10 |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
| 12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3-15 | 시랑의교회(최영석 목사) |
| 16 | 안양로열산기도원(임예재 목사) |

2016년 7월

- | | |
|-------|-----------------|
| 3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3-9 |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
| 11-13 | 모리아교회(조은의 목사) |
| 18-21 |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
| 25-28 | 예년금식수양캠프(양목 목사) |
| 31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2016년 8월

- | | |
|-------|----------------|
| 10-12 |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
| 15-18 | 광운기도원(한배 목사) |
| 22-25 | 감람산기도원(이목관 목사) |
| 28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9-1 | 천문기교회(최정원 목사) |

2016년 9월

- | | |
|-------|----------------|
| 5-8 | 교단총회 |
| 12-17 | 추석주간 |
| 19-23 | 선교지방문 |
| 25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6-28 | 다시람교회(장동준 목사) |
| 29 | 군산신교회 |

2016년 10월

- | | |
|----------|----------------|
| 3-6 | 예스교회(김영선 목사) |
| 10-11 | 정기노회 |
| 17-21 | 임원수련회 |
| 23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4-27 |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
| 31-11, 2 |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

2016년 11월

- | | |
|-------|------------------|
| 5 | 안양로열산기도원(임예재 목사) |
| 7-9 |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
| 14-16 |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
| 17-18 | 노회지교회(심방) |
| 20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21-23 | 총회영성대회 |
| 28-30 | 행복예수원교회(마영진 목사) |

2016년 12월

- | | |
|-------|----------------|
| 4-7 |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
| 12-15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8-24 |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
| 26-30 | 온시랑교회(최태석 목사) |

2017년 1월

- | | |
|-------|----------------|
| 2-4 | 가정성경교회(김성철 목사) |
| 9-12 | 성일교회(조만희 목사) |
| 16-18 | 종기교회(백현기 목사) |
| 23-28 | (인도선교) |
| 30-2 | 광운기도원(한배 목사) |

2017년 2월

- | | |
|-------|----------------|
| 3 | 한일산기도원(이영금 목사) |
| 6-9 | 감람산기도원(이목관 목사) |
| 13-17 | 선교지방문 |
| 20-22 | 초대중교회(김목남 목사) |
| 27-1 | 종동교회(서종복 목사) |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대심방기간

2017년 4월

- | | |
|-------|-----------------|
| 3-5 |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
| 6 | 오산리금식기도원(경환 목사) |
| 9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 10-13 |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
| 17-18 | 정기노회 |
| 18-20 | 안미교회(장진수 목사) |
| 24-27 | 천보산기도원(우정재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오픈

전원주택모텔하우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 전철역 개통)

택지 별도 분양

대지 363㎡(110평) 6,600만원(평당 60만원)

대지 330㎡(100평) / 도로별도 33㎡(10평)

목사님, 성도님께 희소식!! 노후안식처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살기 좋은 여주
청정지역 30여채 전원주택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단지 내 수양관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개통됨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 소요).
-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개통됨.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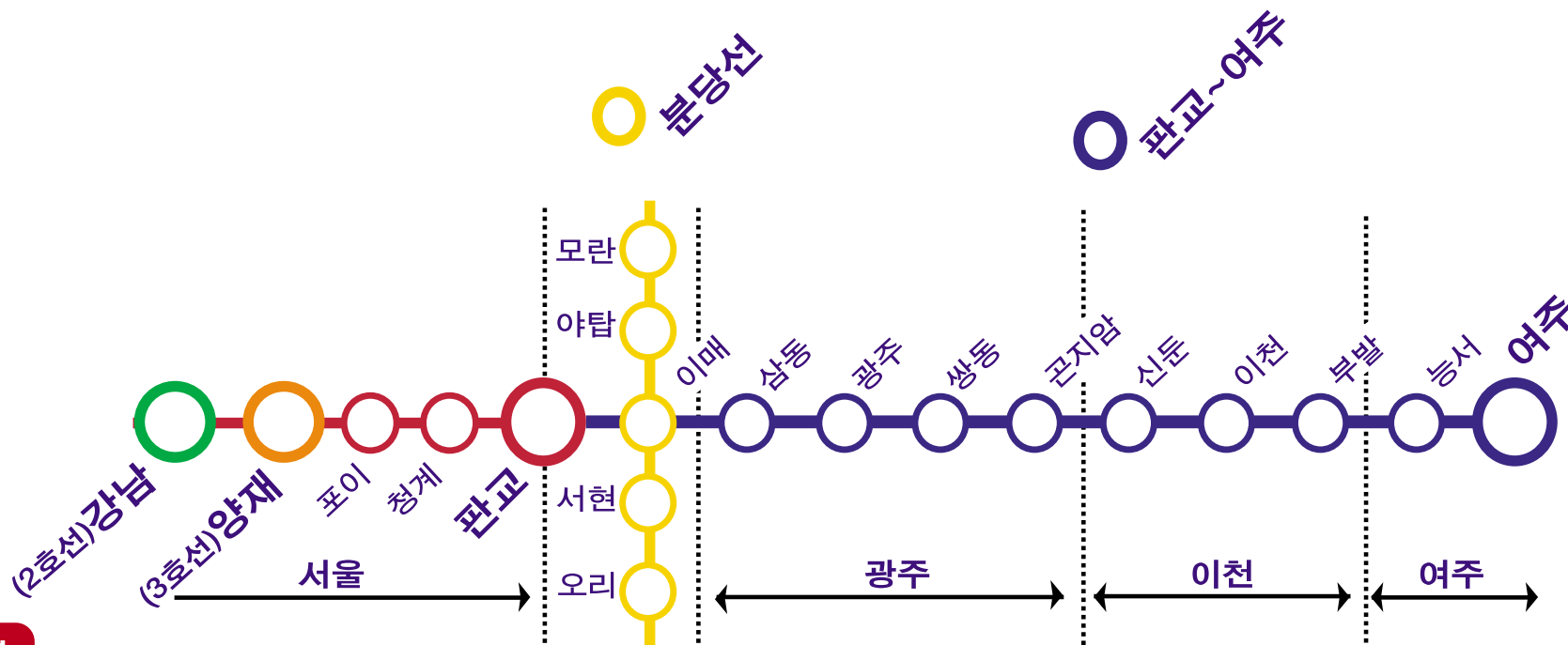
- ♥ 주택
 - 1층 66㎡ 20평 (1억6,500만원)
 - 2층 92.4㎡ 28평 (1억9,500만원)
- ♥ 대지
 - 대지 363㎡ (110평) 6,600만원(평당 60만원)
 - 대지 330㎡ (100평) / 도로별도 33㎡ (10평)
- 고급 소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농협, 마을금고, 시중은행 대출 60~70%까지 가능(이자 3%대).

교육 환경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